

국가표준의 재정비

글 · 주덕영 원장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표준(標準)이란 사물의 정도(程度)를 정하는 기준이나 목표이다. 그리고 규준(規準), 즉 다른 것의 규범이 되는 준칙이나 규격을 말한다. 인간생활에 있어서는 사회생활이나 혹은 개인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물건과 반복해서 행하는 방법이나 종종 사용하는 표현은 거의 같은 것이다. 즉 표준화는 인간사회에 있어서 기술적인 법칙이고 인류가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때부터 우리는 그예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원시사회에 있어서도 주거 짓는 법, 각종 도구나 용구, 농경, 수렵의 방법, 식품의 가공, 저장법에 대해서 몇번이고 반복해서 경험을 쌓는 동안에 표준화가 추진되어 왔고,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전달, 보급되어 왔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점차 인류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표준화도 진보하고 고대문명이 시작될 땐에는 문자, 수의 세는 법, 시간, 길이, 무게의 단위 등 문화의 기초가 되도록 표준화가 실시되었다. 이런 종류의 표준화는 문명권의 확립, 국가권력발생과 함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표준화의 범위도 확대되어 소위 기술시방적 성격의 것이 많게 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표준과 규격은 18~19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이후 빠른 기술발전 속도와 함께 급증하기에 이르렀다.

- 편집자주 -

우리는 이제 인터넷으로 세계를 오가는 정보화시대에 접어 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규격(KS)에는 아직도 새끼줄과 가마니에 대한 기준이 남아있어 이를 맞추지 못하면 표준규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반면에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VD)와 김치냉장고 그리고 심지어는 정보화의 필수기기인 워드프로세서 등의 기술규격이나 형식은 국가표준이 아예 없어 업체마다 제각각 다르게 만들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처럼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국가표준체계를 전면 손질하기로 지난 1월 18일 밝힌 바 있다.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의 낡은 표준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완해서 3월중에 “국가표준기본계획”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04년까지 모두 350억원을 투입하여 공산품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KS 등 기존 공업 표준규격을 개선하고 전자상거래와 지리정보시스템(GIS) 등 차세대 인프라 분야는 물론 환경과 생명공학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표준을 만들기로 계획하고 있다.

현재 1만5백99종에 달하는 기존 KS규격의 경우 시대흐름에 떨어지는 품목은 제외하고라도 새로운 상품들을 대거 포함시키는 등 선진형 국가표준체계로 개편해 나갈 것이다. 또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독자규격도 KS로 통일해 나가 현재 5.6%의 통일화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60%로 빠른 시일내에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가규격 제정시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

하기 위해, 매년 3천개 기업·대학·연구소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표준화 수요조사를 실시해 표준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규격의 제정 및 개정계획에 반영할 것이다. 이를테면 의류·신발·가구·자동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각종 산업체 품이 한국인의 신체치수에 맞도록 정기적으로 일제히 국민체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KS규격에 반영하는 한편 표준색상 등 규격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의 표준화를 재편하고 통일하면서, 한편으로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표준규격인 KPS와 비교하고 검토해서 각종 표준규격과 기호·표시·용어의 단일화 기반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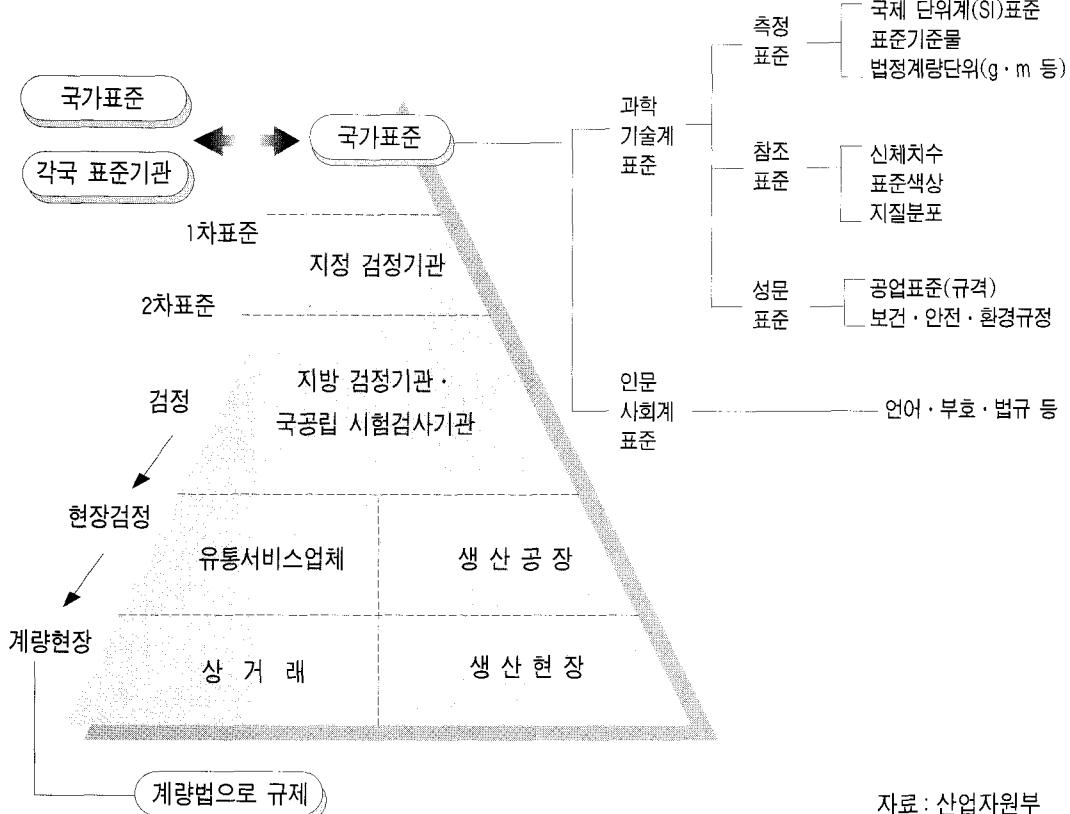
이밖에 만시지탄(晚時之歎)이 있지만 금년내로 일

본을 포함하여 칠레·호주·캐나다 등과 상대국의 표준규격을 서로 인정해주는 상호인정협정(MRA)체결을 위한 협상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선진국들이 자국의 신기술을 세계규격으로 만들어 시장선점에 나서면서 표준을 지배하는 나라가 결국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 맞게 KS의 혁신과 함께 국가 표준체계의 재정비가 이 시점에서 필요하며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업체들이 수출대상국가의 규격을 별도로 따내기 위해 쓰는 비용만을 계산하면 매출액의 2~1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니, 우리나라 규격의 국제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당위인 것이다.

국가표준의 개념과 보급체계



자료 : 산업자원부